

전남

선주-중매인 생산상자 '2cm 싸움'

“선원 고령화로 무게 줄여야” vs “고기 훼손, 현행대로”... 경매 중단 우려

목포 안강망 선주들과 수산물 중매인들이 생산상자 높이를 2cm 줄이는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근해안강망 선주협회와 전국 수산물 중·도매인 협회 목포지회는 지난 달 26일 목포수협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입장만 확정한 채 결렬됐다. 선주와 중매인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데다 목포수협 조합장 부재에 따라 중재자도 없어 사상 초유의 경매 중단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쟁점은 고기 상자 높이 2cm 낮추는 문제. 30여년간 고기를 담은 상자는 높이 9cm, 길이 57cm 크기의 '4호 상자'를 써왔다.

안강망 선주들은 선원 고령화로 따라 고기 상자(28kg) 무게를 줄이고자

상자 높이를 2cm 낮추기로 하고 새 상자를 제작해 출어 어선에 실려 보냈다.

근해안강망 선주협회 박선준(47) 회장은 “제일 짧은 선원이 50대 초반이고, 대부분 60대로 30kg에 가까운 고기 상자를 창고에 넣고 빼내는 일이 힘들어 고기 상자 높이를 낮춘 것이다”며 “새 상자에 고기가 덜 들어가면 그만큼 값을 낮춰 경매하면 될 것인데 중매인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주 김모씨는 “고기 상자에 고기를 넣칠 정도로 담아 위탁하면 중매인들이 산 뒤 고기를 일부 빼내고 상자작업을 다시 해 이득을 얻고 있는데, 상자가 작아지면 이런 이익이 없어져 반대하고 있다”면서 “중매인이

사지 않으면 위탁장에서 그대로 써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8명의 중매인이 소속된 전국 수산물 중·도매인 협회 목포지회는 기존 상자를 쓰지 않으면 고기를 사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왕범(52) 목포지회장은 “얼음 채운 공간과 고기가 눌러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면 상자 크기가 중요한데 선주들이 고령화를 이유로 높이를 줄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새로운 상자에 담은 고기를 사지 않기로 최근 결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지회장은 “새 상자가 나오면 고기 양도 적어지고 기존 상자와 섞여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경매에는 참여하되 새 상자에 담은 고기는

▲안강망(絞網)은 조기류를 주대상으로 하는 서해 연근해의 대표적 어법.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낚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을 닦으로 고정 부설해 조류를 따라 회유하는 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다.

사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출어한 안강망 어선 38척 대부분은 새 상자를 싣고 출어에 나섰다. 조만간 일량이 예상돼 조류의 경매 중단 사태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ilee@



“출어 준비합니다” 조기 유자망 손질 한창 목포 유자망 어민들이 최근 목포시 동명동 부둣가에서 조기잡이 출어에 앞서 어망을 손질하고 있다. 유자망(流刺網)은 조류를 따라 그물을 흘러보내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거나 감싸게 해 낚지·멸치 등을 잡는 데 사용하는 어망 도구이다. /목포=워치러기자 jrw@

전남 오염 심각 저수지 14곳 준설한다

영광 오동제 등 농업용수 수질 개선키로

전남도가 오래된 퇴적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한 도내 저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에 나선다.

준설대상 저수지는 모두 14곳으로 도내 3천여개 저수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의 수질조사 결과 5~6등급 판정을 받은 중점관리 농업용 저수지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함평군 손불면 월천제와 진도군 근대면 둔전제에 대해 퇴적물 처리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국비 18억원을 지원받아 영광군 도내 3천여개 저수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의 수질조사 결과 5~6등급 판정을 받은 중점관리 농업용 저수지이다.

또 영농철 급수를 최우선으로 고려

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저수지 중 오염된 토사의 퇴적량이 많은 저수지를 우선 선정해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갑관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퇴적물 처리사업을 시행하면 저수지 수질 악화를 막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파낸 토사를 일반 흙으로 재생해 농경지 흩뿌리거나 활용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영산포·광양동부·광양원예농협 농산물 유통개혁 대상 수상

영산포농협, 광양동부농협, 광양원예농협이 '2009년도 농산물 유통개혁 대상' 수상농협에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이들 3개 농협이 전국 1천187개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된 ‘농산물 유통개혁 대상’ 심사결과 농산물 판매·유통혁신 대상 수락을 나타내 수상조합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지역 농협부문 수상조합인 영산포농협(조합장 박정현)은 배 공동선별 공동출하 조직육성·생산기반 구축을 토대로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수출확장에 기여했다.

광양동부농협(조합장 박상익)은

매실, 호박, 상추 등 지역 생산농산물의 고급화 전략을 기반으로 농산물 판로를 크게 확대했다.

품목농협 부문 수상조합인 광양원예농협은 친환경농산물 단체급식 확대, 파프리카·염장매실 수출추진 등 유통경로 다양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강형구 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제총괄팀장은 “지역 조합의 성장과 농민 소득향상을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상품화·규모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할 관내·유통개혁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정례대회에서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회기근중 사진전 이달말까지 완도수목원

전남도는 3월 한 달간 완도수목원 내 전남도산림박물관에서 ‘회기근중 특별사진전’을 갖는다

국내 최대 난대림 집단수목원이자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토대로 난대 산림자원 수집과 보존·전시·연구 등을 위해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회관(回廊)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전에는 우리 주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희귀 곤충 ‘왕소풍구리’, ‘밀잠자리’, ‘부전나비’, ‘교마잠자리’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 자료들은 국립중앙과학관 후원으로 확보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찜질방·물리치료실 있어요”

화순 '나드리 노인복지관' 개관

화순군은 1일 오전 11시 화순읍 강정리 화순천변에서 '나드리 노인복지관'(사진)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노인복지관은 부지 6천912㎡, 연면적 2천788㎡ 규모로 호랑나비가 날아가는 모형의 유선형 2층 건물로 디자인됐다.

장애노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해

1·2층을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휠체어를 탄 채 건물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장애인 전용통로가 마련됐다.

1층에는 남녀 찜질방과 샤워실, 각종 물리치료기가 비치된 건강증진실, 진료실, 2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2층 어울림터(대강당)에서는 영화감상을 비롯해 우리춤, 차민댄스, 실버댄스, 진도북춤, 웃음체조, 노래교실, 스포츠 라틴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화순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월말 현재 전체 인구 6만9천 662명 가운데 1만3천990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zunsu@

광산구 공영주차장 설치 3년째 제자리

부지 확보 못해

광주시 광산구가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3년째 부진을 겪어오며 차감되지 못한 상태이다.

광산구는 지난 2008년부터 예산 48억원을 확보해 광산구 구도심인 송정권에 79~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광산구는 현재까지 ▲송정동 구 송정J교회 ▲송정동 부지 2개소 ▲송정동 S주조장 등을 3차례에 걸쳐 대상부지로 매입하려 했으나 구의회의 잇단 제동으로 무산됐다.

1차 매입안은 구의회에서 승인했으나 매입시기를 놓치면서 제 3자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부지확보에 실패했다. 2차 매입 과정에서는 입찰물건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특혜사비 의혹 등의 민원악기로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더욱이 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3차 대상부지인 송정동 S주조장은 최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주민들은 “구와 의회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목포항~泰·印尼·日 잇는 항로 개설

목포시-양해해운(주) 협약

목포항을 운항하는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달 26일 시청 상강실에서 양해해운사와 목포항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을 운항하는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식을 가졌다.

양해해운은 지난해말 태국, 일본 서안(西岸) 항로와 인도네시아 항로를 연 데 이어 지난 달 12일 일본 동안(東岸) 항로를 개설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훈기자 lyc@

태국, 일본 서안항로에는 6천2급 선박 3척을 투입해 목포~기릉~홍콩~방콕~랍차방~목포~부산~토마코마이~아키타~니가타~도야마~부산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항에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회 기항한다. 또 인도네시아 항로에는 목포~기릉~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빈블루~부산항을 2만급 선박 3척이 투입해 매주 일요일 목포항에 기항한다. /서부취재본부=임영훈기자 lyc@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Hyo Sang Gong-in Jeung-gae-sa)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바다공인중개사' (Bada Gong-in Jeung-gae-sa)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Choi-go-gup Jeon-won-juok-mae-mae)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high-end villas and lan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in-dong Sang-il-bu-dong-san)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Jung-nyun-gommin-bupmul-kyeung-mae) with contact info 062)364-8700. Services include legal auctions and real estate.